

올해 스무돌... '진정한 영웅' 발굴한 세계인의 축제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 열려 성관스님 박청수 교무 등 수상 11일~14일 '만해축전' 이어져

“같은 시대를 살면서 자신에게도 슬한 고뇌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송고한 헌신과 박애를 우선하여 실천으로 보여주었고, 문화예술로 마음 깊은 감동으로 삶을 어루만지며 앞날의 용기를 전해준 모범은 원력보살의 화현과 닮아 있습니다.”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만해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동국대학교, 조선일보사 주최로 개최됐다. 700여 석의 자리를 대중에 가득 채운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만해대상실천선양회 총재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법어를 통해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진정한 영웅은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보호자가 되겠다는 서원으로, 세상의 종이 되는 사람”이라는 〈입보리행론〉의 가르침을 전했다.

1997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만해대상 시상식을 개최한 이후 20년간 26개국 108명의 수상자를 배출해낸 만해대상의 올해 수상자는 평화대상에 로터스월드 이사장 성관스님과 청수나눔실천회 박청수 교무, 실천대상에 소록도 간호사로 평생을 보낸 마리안느 스티브 수녀와 마가렛 피사레크 수녀가 선정됐다. 또 가수 이미자 씨와 한양대 명예교수인 이승훈 시인이 문



제20회 만해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 하늘내린센터에서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은 수상자 기념촬영.

예대상을 차지했다. 성관스님은 2002년 캄보디아 지원사업을 시작, 2004년 로터스월드를 세우고 캄보디아와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 저개발국가 지원사업을 이어온 공로로 평화대상에 선정됐다. 성관스님은 수상소감을 통해 “한번은 세상에 와서 산 것처럼 살아보리라는 다짐으로 한 갑자의 인생을 살았지만 아직 자신 있게 그 대담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분들과 함께 평등과 평화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것이 많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만해스님의 실천적 삶을 계승하기 위해 더욱 용맹정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평화대상 공동수상자인 박청수 교무는 선각자이면서 애국자로, 계몽운동가로 살았던 만해스님

의 삶을 간략히 설명하고 “역동적인 삶으로 한 사람이 일생을 바쳐 애써도 이룰 수 없는 많은 업적을 쌓은 만해스님의 혼을 본받고 싶다. 앞으로 만해스님의 평화정신을 기리고 본받아 실천공명의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마리안느 수녀는 43년 동안 한센인을 위해 소록도에서 봉사를 실천하고, 노년이 돼 몸이 불편해지자 고향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다. 병환중인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를 대신해 시상식에 참석한 안드레아 에드로 수녀는 “마가렛 수녀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의 한 요양원에 있다. 많이 아프다. 지금도 본인은 소록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찾은 소록도에서 옛 친구들을 만나 즐거웠다. 귀국 후 여러 소식을 마가렛 수녀에게도 전해주겠다. 사랑을 실천한

만해스님을 기리는 큰 상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반세기 넘는 시간 2500여 곡을 발표하며 노래 인생을 산 이미자 씨와 이승훈 시인도 수상대에 올라 소감을 전했다. 행사에는 총무원장 자승스님, 제3교구본사 신홍사 주지 우승스님, 황영철·김진표·박광은·김영진 국회의원, 강천서 조선일보사 논설고문, 이순선 인제군수 등 내외빈 8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올해 18회를 맞은 만해축전은 11일 평화시 전사회를 시작으로, 만해대상 20주년 기념 특별전, 유심문학상 시상식과 각종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14일까지 만해마을과 인제군 곳곳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 ▶관련기사 9면

인제=안직수 기자 jsahn@ibulgyo.com

총본산성역화 불사 동참 감사드립니다

한국불교중앙회를 위한 조계종총본산 성역화불사에 동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모연금은 조계종총무원 일대에 장엄하는 여법한 불사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기도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 기금 모연명단

(2016년 7월20일~8월10일)

□기금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원정스님) 5000만원 △제10교구본사 은해사(주지 둔관스님) 5000만원 △양양 낙산사(주지 도후스님) 5000만원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스님) 4000만원 △조계종 포교사단 2000만원 △서울 약사사(주지 범해스님) 1000만원 △제7교구본사 수덕사(주지 정묵스님) 400만원 △한글문화원수원장 구과스님 300만원 △양양 낙산사 흥련암(회주 정법스님) 200만원 △불은사 국장스님 일동 100만원 △박현준 100만원 △박순자 100만원 △신정수 50만원 △서울 흥천사(주지 정관스님) 50만원 △덕원스님 30만원 △교육원장 현승스님 30만원 △김봉옥 20만원 △교영애 12만원 △정영호 10만원 △정영서 10만원 △이유관 10만원 △이육선 10만원 △부산 장금선원(주지 원어스님) 10만원 △박민선 10만원 △도수태 10만원 △이종훈 10만원 △김영주 5만원 △김상기 5만원 △권계순 5만원 △윤찬목 3만원 △이종규 1만4000원 △김미애 1만원 △박해중 1만원 △김은희 1만원 △김방현 1만원 △이서영 1만원 △이순자 5000원 △성은미 3000원. (총 2억 3497만2000원)

※ 모연 후 전화(02-730-6690)를 주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성역화 불사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템플스테이 변화가 필요하다면 ‘지도자 양성 심화과정’ 오세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스님)가 오는 9월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전국비구니회관 법문사에서 템플스테이 지도자 양성 심화 과정을 실시한다. ‘불교의 창의성 연구’를 주제로 진행되는 템플스테이 지도자 양성 심화 과정은 템플스테이에 활력을 불어넣고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진교의 시간과 불교문화와 템플스테이의 이해, 지도자의 자세, 스피치 기술, 불교명상과 심리치료, 몸과 마음의 조화, 음악명상 치료, 템플스테이의 미래 동향 등의 강의로 진행된다. 템플스테이의 변화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심화 과정 수료시 종단 연구교육 30점이 인정된다. 참가비는 10만 원이다.
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현대차 추진 봉은사 옛 땅 세부개발 계획 안전 ‘보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위

봉은사가 사찰 옛 땅인 한전부지에 조성될 현대차그룹 통합사옥(GBC)과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 계획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 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심의 위원회가 현대자동차 부지 세부개발계획에 대한 안전을 보류시켰다. 하지만 봉은사 수행문화환경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서울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한 조성 계획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은 최종 수정가결 때 불교계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같이 심의한 현대차 부지 개발계획 수립 안전은 공공성 확보 등 계획내용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급변 심의에서 보류했다”면서 “향후 사업과정에서 교통, 환경, 안전 등 면밀히 도시 변화를 검토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봉은사와 조계종한전부지환수위원회는 지난 10일 서울 시청 광장에서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의집회를 갖고 옛 봉은사 부지에 조고층 빌딩 건축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봉은사 관계자는 “봉은사와 일체 협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문화재, 교통, 환경 등의 각 분야 외부전문가로부터 개발행위에 따른 향후 영향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봉은사와 조계종한전부지환수위

위원회는 같은날인 10일 시청 앞 광장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조고층 빌딩 건축 불허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봉은사 대중들은 “강남 역사문화관광의 중심 랜드마크는 봉은사인 만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결의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성수 기자 soolee@ibulgyo.com
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포교원 '전법중심도량' 공모

조계종 포교원은 종단 차원의 집중적인 전법지원과 육성을 위해 각 분야별 '전법중심도량'을 모집한다. 전법중심도량은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새터민, 이주민 등 4개 분야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종단 사찰을 대상으로 한다. 전법중심도량 지정 사찰에는 종단에서 개발한 각종 교구재 및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지원 받고, 사찰과 연계한 종단 사업 시 우선 선정 및 예산 지원, 주요한 지역사업 또는 불사 시 종단 포교사의 자원봉사 지원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또한 전법중심도량 주지 스님이 2년 이상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했을 경우, 포교원장이 본발 사주지인사규정의 심사위원회에 전법중심도량 활동 결과에 대한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희망 사찰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에서 소정양식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계획안 등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포교원 전법지원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박인택 기자

바로잡습니다 지난 8월13일자 3224호 2면에 실린 '승가교시 일정변동' 기사 중 2017년부터 3급 승가교시는 1월이 아닌 4월에 시행됨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제3회 신작찬불가 지원 공모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불교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창조적인 조화를 바탕으로 불교음악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신작찬불가 창작 및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3회 신작찬불가 지원 공모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 응모자격 : 불교음악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불자 및 일반인
- ▶ 공모 및 접수방법
 - ① 공모 및 접수기간 : ~ 9월 9일(금) 오후 6시 까지
 - ② 접수방법 : 우체국 등기 접수, 직접방문 접수, 팩스 접수 불가
※ 우편접수로 마감 당일 9월 9일(금) 우체국 소인에 한하여 접수 가능
양식 다운로드 www.buddhism.or.kr, 문의 : 불교음악원(02-3218-4866)
 - ③ 접수시 구비 서류
 - 1. 신청서 1부(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 내 성명, 주소, 연락처, 작품 동기 및 해설을 필히 기입.
 - 2. 음원CD 1개
 - 3. 악보 5부 · A4/B4 사이즈로 제본 상태 혹은 파일 편집 제출.
· 악보는 음원상 편곡된 악보를 원칙으로 하며, 합창곡의 경우 피아노 반주와 성부가 표기된 악보를 제출.
· 악보는 정사보 형태로 악보에 작사 및 작곡가 표시가 들어갈 경우 접수 및 심사에서 제외.
 - 4. 사진 1매(반명함 사이즈)
 - 5. 참가비 5만원 : 우리은행 1005-102-825167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통장 입금만 가능)

- ▶ 공모내용
 - ① 대중 찬불가 ② 찬불가 합창곡 ③ 찬불가요 ④ 찬불동요 등
※ 불교적 사상 또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창작곡으로 장르제한 없음
※ 노랫말 내용은 · 불교를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
·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으며 한문 사용은 자제할 것
· 가복지적이지 않을 것
·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랫말로 불교사상과 가르침 표현
- ▶ 심사평가 및 선정 절차
 - ① 1차 서류평가(9월 중) : 접수된 찬불가의 대중성 · 총성 · 작품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 실시, 최종 선정 작품수의 2배수로 선정
 - ② 1차 서류평가 결과발표(9월 중)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 ③ 2차 발표평가(9월 말) : 작곡가의 역량 및 곡의 작품성 등을 종합심사 및 평가 진행
1인당 프레젠테이션 10분, 질의응답 20분 진행
 - ④ 2차 발표평가 결과발표(10월 초) :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고
 - ⑤ 시상식 및 신작발표 연주회(12월 초) 평가, 선정, 협력 일정 등은 접수된 곡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시상내역
 - ※ 시상 내역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참고사항
 - ① 최종 선정된 작품은 12월에 진행될 시상식 겸 신작발표 연주회를 위해 챔버 이상의 구성으로 편곡된 파일 및 악보를 10월말까지 제출.
 - ② 응모작품은 순수 창작곡 및 미발표 곡이어야 하며, 발표 사실이 있을 경우 응모 자격 및 수상자 선정에 무효로 처리.
 - ③ 기존 문학작품을 가사로 사용하는 경우 응모자는 해당 작가와 작품의 사용승인 절차를 거친 후 사용해야 하며, 표절 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응모자격 및 수상자 선정에 무효로 처리.
 - ④ 응모작품은 1인 1작품으로 제한.
 - ⑤ 출품된 작품 및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⑥ 심사위원 및 심사점수는 공개하지 않음.
 - ⑦ 수상된 작품은 불교음악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음반 및 악보제작, 온라인 콘텐츠, 방송, 공연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계약 없이 사용권에 대한 공동 소유를 저작권자가 허락한 것으로 인정.
- ▶ 접수처 :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06087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531)
- ▶ 문의처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02)2011-1779 (담당 이지성)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 02)3218-4866 (담당 박세웅)